

‘서울시교육감 선거’ 단일화에 달려

총 15명 후보자 출마 공식화
진보 진영, 후보 8명 단일화 합의
보수계열 “지난 선거, 과반 득표에도
단일화 안 해 조희연 후보에 패배”

내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진보·보수성향 인사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후보 단일화’ 여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진보 진영은 일찍이 후보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 단일화 실패에 3선 모두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실패했던 보수 진영도 이번에는 단일화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에서 10명, 보수 진영에서 5명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진보 진영은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비교적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계 진보 인사단이 만든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8명 후보 단일화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며 6일까지 경선 룰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선 일정은 후보자들이 합의하기로 했다.

추진위에 등록된 후보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위원장, 박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홍제남 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국장(전 서울 오류중 교장)이다. 진보계인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위원도 도전장을 냈지만,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 참여 후보(강신만, 박노현, 김경범, 김용서, 김재홍, 안승문, 정근식, 홍제남)들이 5일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이번 추진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소설 ‘범도’의 작가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계열 후보들도 잇달아 출사표를 내고 있다. 이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이 출마를 본격화했다.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 역시 각 진영에서의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 2018,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자리를 내줬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에서도 단일화

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2년 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은 과반 득표를 하고도 단일화를 안 하는 바람에 조희연 후보에게 패했다”라며 “후보 단일화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공개적인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단일화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서울시교육감을 진보진영에 빼길 수 없다”라며 “(단일화 과정에서)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약속을 깨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궐 선거일은 내달 16일로, 본후보 등록은 26·27일까지 기간이 된다. 선거운동은 10월 3일부터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4개 분야 ‘추석 종합대책’ 가동

오는 13일~19일 시행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2024 추석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추석 종합대책은 ▲시민안전 ▲교통대책 ▲민생안전 ▲생활환경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응력 보강을 위해 서울시내 응급의료기관(49개소)과 응급실 운영병원(20개소) 총 69개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1800여개로 확대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이달 14~18일 경증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진료반’을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당일과 다음날, 지하철과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지하철 1~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 마지막 열

차가 다음날 새벽 2시에 종착역에 도착하도록 하루 총 121회 증회 운행한다.

또 서울역 포함 주요 기차역(5개소), 고속터미널 등 터미널(3개소)에서 종점 방향 시내버스 도착이 익일 오전 2시에 통과하게 배차 시간을 조정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추석 연휴 전 저소득 가정에 1억90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 지원한다. 연휴 기간에도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연휴 기간 쓰레기 무단 배출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을 사전에 안내한다. 추석 전 발생한 쓰레기 수거·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연휴 이후에는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마무리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관련 생활 정보는 ‘2024 추석 연휴 종합 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대전시가 4일 서울 양재 N타워에서 열린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지식재산 진흥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하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 지식재산 시행 추진실적 ‘최우수’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선정

대전시가 지식재산 진흥 유공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대전시가 유일하다.

지난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지난해 전국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한 결과, ‘IP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일류도시 대전’ 사업을 추진한 대전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시는 이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 7월 22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 소관 중앙부처인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10대 협력 과제를 추진해 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는 지식재산이 지방정부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대전시는 6대 전략사업 등의 육성을 위해 산학연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및 활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

2026년 명동서 남산 정상까지 5분 걸린다

서울시, 남산 곤돌라 착공식
25대로 832m 구간 동시 운행
시간당 최대 1600명 방문객 수용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5일 오전 중구 예장공원에서 개최된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오는 2026년에는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이내에 올라갈 수 있다. 곤돌라 캐빈 25대가 832m 구간을 동시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하게 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중구 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2일 하부 승강장 예정지에 있던 이회영기념관 철거에 들어갔다. 각종 인허가를 마치고, 올 11월 본

공사를 시작해 내년 11월 준공한 뒤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 남산 곤돌라를 정식 운행한다는 목표다.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상부 승강장) 832m 구간을 오간다. 시는 곤돌라 조성 후 남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주변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망 공간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남산 곤돌라 운행이 시작되면 남산의 생명력, 활력, 매력, 경쟁력이 모두 빠른 시일 내 엄청난 속도로 개선될 것”이라며 “곤돌라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ik1@

‘서울디딤돌소득’으로 K-복지모델 제시

서울시, ‘안심소득’ 새 명칭 공모
정교한 개편 위해 정합성 연구 진행

서울시는 ‘안심소득’ 이름 공모를 거쳐 최종 명칭을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바꾸고, 전국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서울디딤돌소득(옛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책의 핵심 가치와 의미를 잘 담아내면서도

새로운 K-복지모델을 제시해 줄 명칭을 만들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시민 선호도 투표에서 서울디딤돌소득이 전체의 약 34%에 해당하는 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 새 이름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단단한 기초이자 디딤돌이 돼준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현재 시는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 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자리매김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국민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2030 청년성도 증가세

8개월 정규과정 수료자 年 10만여명

신천지예수교회의 20~30대 청년성도 증가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약 8개월간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 교인의 수가 매해 10만여 명이 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수료생을 배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러한 성장의 비결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설교와 교육, 구역장 등 사명자들의 교인들을 향한 헌신적인 신앙관리가 주요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이만희 총회장에게서 비롯됐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총회장은 과거부터 전국의 각 교회를 직접 찾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교역자 등 사명자들에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을 주문해왔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경에 입각한 탁월한 계시 말씀과 이만희 총회장의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에 사명자들도 본받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올해에도 지난해보다 더 크고 잘 준비된 수료식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